

종합·해설

■ 민주·지역정치권 서울시장 보선 후폭풍 촉각

당내 역학구도·공천 지형 변화오나

박원순 승리엔 시민사회 목소리 커져

야권통합 논의 등 기득권 양보 불가피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범야권 박원순 후보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부의 역학구도 및 내년 총선의 공천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 민주당 공천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범야권의 박원순 후보가 승리할 경우,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등 기존 정당의 입지가 취약해지는 반면 장외의 시민사회 세력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박 후보를 적극 지원한 민주당은 나름대로 체면을 세우겠지만 추후 진행될 야권통합 및 연대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야권 통합 및 연대에서의 민주당 기득권 포기 및 연결되면서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전반적인 '공천 지형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공천 물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야권 대

통합 및 연대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 방식'은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후보의 승리에 따른 다양한 야권 통합 및 연대 시나리오를 물론 내년 총선 공천에서의 민주당 기득권(공천) 양보 폭을 둘러싼 각종 '설'이 범람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후보가 승리한다면 정당 밖의 통합 세력 입지가 견고해지면서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민주당은 박 후보가 '이겨도 걱정이고 져도 걱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야권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또한 야권 대통합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민주당의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당장, 통합 정당 대회 개최 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단독으로 정당대회를 치른다 해도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 구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혁신과 통합 등 장외 세력에서는 통합 정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단계적 통합론이 제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즉, 민주당 정당대회를 먼저 치르고 이를 바탕으로 총선 이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야권 통합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야권통합이 진통을 거뒀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의 1단계 통합이 우선 이뤄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동 대표제 등 통합 지도부가 구성될 것이라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박원순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안철수(안철수 바림)를 계기로 급부상했던 시민사회 세력이 주축하게 되면서 야권 통합과 연대 과정에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주

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후폭풍은 기존의 정치 구도를 뒤엎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향배는 내년 총선 공천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불심(佛心) 잡기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와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한나라당 흥준포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함께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108산사순례기도회에 참석, 버스를 누르고 있다.

독도마라톤·108산사기도회 찾아 첫 주말유세

서울시장 보선 D-9

10·26 재보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16일 여야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박원순 후보 뿐 아니라 여야 지도부까지 나서 표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독도수호 마라톤 대회와 농촌사랑 마라톤대회에 참석, 시민들과 직접 만났다. 이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이번 선거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양화대교를 방문, "안전 문제와 투입된 예산의 낭비 등을 막기 위해 빨리 완공해야 한

다"면서, 전시행정의 결과를 보여주겠다며 중간 공약을 내건 박 후보의 정책을 비판했다.

나 후보는 오후에 흥준포 대표와 함께 불교계 법회에 참석해 데 이어 상도동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도 하며 '1일 1봉사 유세'를 이어 갔고 고척동 일대 골목을 누비며 유세를 했다.

박 후보도 이날 오전 성지순례단 교인들을 만난 데 이어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고, 호남향우회 체육 대회 현장을 방문해 유세를 벌였다. 오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108 산사 순례기도회 5주년 기념 법회와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나눔장터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고 이어 구로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경청투어'를 이어갔다.

후보 검증과 네거티브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특히 나 후보 측의 검증공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박 후보 측이 이날부터 정면대응으로 기초를 전환하면서 양측간 검증공방과 감정싸움은 갈수록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박

후보 선대위원장은 이날 안국동 선거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MB정권과 한나라당이 흉흉물을 던지며 악랄한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박원순 후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며 "선거를 진흥망으로 만들어 시민의 참여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치를 외면하게 하려는 자들의 저열한 음모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 후보 선대위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혁신선전과 막말 정치 추방은 우리도 바라는 바"라면서 "그러나 공직을 원한다면 검증과 정은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라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력 의혹 제기 관련 강용석·안형환 고소

박원순 후보측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은 지난 15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안형환 대변인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 측은 고소장에서 "박 후보가 명백히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했음에도 강 의원은 이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안 대변인은 이 주장을 인용해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야, 장애인 인권침해특위 구성

한, 장애인 교육시설 국공립화 방안 추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14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성폭력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북한(민생)인권법과 국회선진화법, 국방개혁 관련법, 미디어법 등 각 상임위에서 타결이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6인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서명했다.

또 북한에 억류된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의 조기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촉구 결의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도 예산안과 금급 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별로 논의를 마무리해 11월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정되는 같은 달 30일까지 의결하며,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사항인 한미 FTA는 오는 17일 의회위 끝장 토론이 끝난 뒤 재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우정 원내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한미 FTA 처리를 위한) 3가지 선결조건으로 '10+2' 독소조항 제거와 통상절차법 관련 통상조약 체결, 이행 관련 특별법 처리 등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입장 차이가 잘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시한을 정해놓고 한미 FTA 관련 쟁점사항을 논의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에서 시한 설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교육시설을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은 당 정책위의장은 "전국 150여개 장애인 교육시설 중 절반 이상이 사학비영리 등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우선 광역시도별로 국공립 장애인 시설을 1곳씩 짓고 점진적으로 국공립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羅 초박빙... 부동층 줄었다

작년보다 10%P 줄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16일 한나라당 나경원, 범야권 박원순 후보는 초박빙의 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의 우위로 시작된 판세가 나 후보의 맹추격 속에 혼전양상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부동층 유권자도 이전 선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측된다.

내일신문과 리서치뷰가 지난 12~13일 서울지역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96%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박 후보가 47.0%의 지지율로 나 후보(44.4%)를 2.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11일 서울신문과 엠브레인이 서울지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선 나 후보가 47.6%로 박 후보(44.5%)를 3.1%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리서치뷰의 안일원 대표는 "한나라당의 집중적인 공세와 강한 조직력, 그리고 보수층의 결집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지율 격차가 현저히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의 캠프도 지금의 판세를 백중세로 보고 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두 후보의 지지율은 엇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부동층은 엠브레인 7.9%(10~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8.4%(8일) 등 10% 이내였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조사에서는 3.7%(7일), 범야권 박원순 후보가 의뢰한 MRCK(5~6일)는 4.7%(5~5일)로 5%에도 못미쳤다. 이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비슷한 시기에 서울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부동층이 15% 전후로 집계됐던 것에 비해 최대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결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여실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회갑연,송연모임,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극치장은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창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집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자연녹지(물류창고,공정직할) 광신구비어동, 비아 1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물류창고, 공장기타용도가능) 광신구 송학동, 나주 1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전원주택, 연수용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신구 양동, 용성지동차원 인근, 28,845㎡(8,726평) 대지 약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
- ▶준주거지역(병원, 사옥, 임대용상가건물신속부지적합) 화정동, 광산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동일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9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1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광신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18억

<금>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입니다

T. 062)371-1900, 010-2006-0115
삼우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수원지구 상가 분양 전문 임대 전문

학원·병원·한의원·고급식당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이델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즉시입주가 가능 시비없음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건축시공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도시형 주택전문)

- 수익성상가
- 안전한재건축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건축·분양 임대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해드립니다.
대신종합건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김장가12억6천만 최저가1억9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앞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김장가4억8천만 최저가3억9천만
- 서구 송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김장가4억2천만 최저가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김장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9평 건평155평 김장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입점(도시가스,리모텔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

토지매매

- 무안군 해례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일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
- 신안군 지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